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, 설맞이 지역 복지 시설 기부로 ESG 경영 실천

김도윤 기자

승인 2026.02.11 22:04



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]

[한국영농신문 김도윤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목포·신안·무안 관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상생 나눔을 실천했다.

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ESG경영 실천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.

기부금을 전달받은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원요준 원장은 “최근 경기부진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기부가 많이 줄어들고 운영비용도 증가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”고 말했다.

박형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“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ESG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김도윤 기자 nh9669@daum.net

<저작권자 © 한국영농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